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생활 철학 5 편>

유대인 역사에서 최고의 현자로 꼽히는 사람은 기원전 930 년경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이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의 아들이며, 구약의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쓴 사람이다. 솔로몬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 킬로미터가 떨어진 가드온에 찾아가 매일 양 한마리를 제단에 바치며 천일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부터 단 한가지 <지혜>를 구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솔로몬 왕이 가르치는 슬기로운 삶의 지혜’라는 뜻이고, <전도서>는 ‘백성에게 지혜를 전파한다’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의 첫번째 삶의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 단언한다.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이 한마디로 <헛되도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후손들에게 인생은 헛된 것이며, 이땅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한 시대의 새로운 변화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이미 옛 선인들이 체험한 변화이므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다. 솔로몬의 주장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은 급격히 변해도 변화의 본질인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마찰음이며 이것을 <관계의 조화>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삶의 본질인 인간은 5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으니 <온고지신 :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지혜는 우리네 조상들의 가르침과 다를바 없다.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는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탈무드>자체가 인생이며 인간의 본질과 삶을 이야기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생명과 같은 세가지 책이 있다. 첫째가 <토라>다. 구약 1 권에서 부터 5 권까지,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가 40 년동안 집필한 5 권의 경전이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성서롭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유대 민족간의 계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토라>는 그들의 <계약서>다. 구두로 한 계약이니 <언약서>다. 두번째는 <토라>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이다. 하나님께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선택받은 어느 유대인 집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번영을 누리다가 디아스포라 (뿔뿔히 흩어짐, 이산)되었는지, 시대별로 유대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구약>은 유대인이 작성한 유대인 그들의 역사책이다. 방랑의 세월을 산 유대인들에게는 이정표요 나침반인 셈이다. 그러나 유대인이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가 말씀하신 <신약>의 하나님과 마호메드가 말하는 <코란>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동시에 서로 다른 하나님인 것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니 긴 역사 속에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다. 종파주의나 율법주의나 근본주의 등 모든 종교분쟁도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어떠한 지도자라도 그를 추종하지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뱀에게는 머리와 꼬리가 모두 필요하며 지도자는 뱀의 머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번째가 인생 가르침인 <탈무드>다. 총 63 권으로 1 만 2 천장이 넘는 분량과 250 만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한 거대한 지침서이다. 무게만 75 킬로그램에 달한다. 수천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유대민족의 지혜와 지식을 기원전 500 년부터 서기 500 년까지 1 천년에 걸쳐 약 2 천명의 랍비들이 집대성한 책이다. 탈무드의 맨 마지막장은 백지로 되어 있는데 삶이 계속되는 한, 탈무드의 지혜도 계속 된다는 믿음이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유랑 경험에서도 깨달은 것이다. 타 민족들은 땅과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으므로 머릿 속에 삶의 지혜와 고유한 생활을 담는 것으로 그들만의 뿌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들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만 지혜를 이어온 유대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영광을 되찾은 것이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유대 민족들은 머릿속에 삶의 지혜와 고유생활을 담는 것으로 그들의 뿌리를 유지해 왔다. 디아스포라 이후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묻는 질문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집을 불태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쳐야 할까?” 힌트는 “모양도 빛깔도 냄새도 없어야 들키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정답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지혜>밖에 없다” 유대인 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욱 값지게 여겼는데, 지식은 형태가 있지만 지혜는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무소유”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갖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이해하라>고 한다. 유대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변화를 추종하는 것은 망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니 인간의 본질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은 변화하는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변화의 시대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아니라, 본질인 인간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로 결정된다고 한다. 인간은 오감본능과 욕망의 화신인 동시에 고독과 두려움의 결정체이기에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고객의 트렌드와 심리 변화를 읽어야 하듯이, 결국은 인간 경영학이 키워드다. 유행가 가사처럼 “유행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님과 함께 지혜롭게 산다면 나는 좋아...”